

《三國志》 所字구조 연구*

이소동**

<目 次>

1. 서론
2. 《三國志》 所字구조의 지칭성분
3. 《三國志》 所字구조의 통사위치
4. 《三國志》 所字구조의 VP유형
5. 所字구조의 발전방향 고찰
6. 결론

1. 서론

1.1 연구동기

고대한어에서 所字구조¹⁾는 者字구조, ‘主之謂구조와 함께 대표적인 명사화 구조로 인식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所字, 者字구조는 ‘轉指구조에, ‘主之謂구조는 ‘自指구조로 분류되며, 더 나아가 지칭 성분의 차이에 따라 所字구조는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1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부 조교수

1) 본문에서는 명사화구조로 쓰인 所字 용례를 총괄해서 ‘所字구조라 칭하고, 지칭성분에 따라 ‘所VP’, ‘所介VP’, ‘所(介)VP’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목적어를, 者字구조는 주어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²⁾ 고대한어에서 명사화구조의 이러한 기능 분화는 근대로 접어들면서 底字구조에 의해 통일이 되며, ‘底’는 또 원대 중엽에 들어와서 현재의 명사화 표기라 할 수 있는 ‘的’으로 대체되어 표기되고 있다. 명사화가 모든 언어의 보편적 현상이며, 중국어 역시 고금을 막론하고 그 사용빈도가 높음을 감안할 때, 중국어 명사화구조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는 한어사 연구에 있어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풍부한 관련 연구 성과는 명사화의 이러한 연구 가치와 상응하지만, 연구의 균형성과 연구결과의 신빙성, 통일성 방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상고시대 명사화 구조의 공시적 연구나 근대한어에서 통일된 명사화 표기‘底’의 기능과 현대한어 ‘的’으로의 발전 과정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또한 근대한어 명사화표기‘底’의 탄생 배경은 오래전부터 한어사 연구의 화두가 되어왔지만, 아직까지 공인된 설이 없는 실정이다.

근대한어 명사화표기‘底’의 前身으로 대략 3가지 설이 제시되어왔다. 고대한어 명사화 표기 ‘者’설, 명사화표기‘之’설, 지시대명사‘底’설이 이것인데, 음운과 어휘, 어법 기능에 근거에 보았을 때, 각각의 설이 타당성을 가지지만, 아직 상호 반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객관적인 논증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所’, ‘者’, ‘之’ 등의 명사화 표기가 어떠한 기능변화를 거쳐 ‘底’로 통일되고 있는지에 관한 관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고대 한어에서 이들 명사화 표기가 아무런 기능의 축소나 확장 없이 근대로 접어들면서 갑자기 하나의 명사화 표기로 통일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앞으로의 연구는 지금까지의 한어 명사화에 관한 연구에서 간과되

2) 朱德熙가 <自指和轉指－漢語名詞化標記‘的,者,所,之’的語法和語義功能>(1983)에서 언급했던 내용으로 학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 공인된 하나의 어법이론으로 발전하였으며, 본문에서는 서술의 편의를 위해 ‘轉指’ 혹은 ‘自指’ 등의 술어를 그대로 쓰기로 하고,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상기 논문을 참고하기 바람.

어은 近古시기에서 근대 底字구조가 탄생하기 직전의 有標記 명사화 구조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의 출발로써, 西晉 시대의 저작인 陳壽의 《三國志》에 출현하는 所字구조를 대상으로, 먼저 그 지칭성분과 분포현황, 그리고 명사화가 발생하는 VP의 유형과 빈도를 고찰할 것이며, 이어서 先秦과 漢代 所字구조와의 비교를 통해, 所字구조의 발전 추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연구 대상의 시기와 문헌을 西晉의 《三國志》로 선정한 이유는 《三國志》의 편찬 연대가 3세기 후반인 280년대 정도임을 감안할 때, 아래로는 上古시대의 명사화구조가 생겨난 지 이미 1000년 이상의 거리가 있고, 위로는 근대의 통일된 명사화표기‘底’가 생겨난 시간적 거리와 멀지 않아, 명사화 구조의 발전 추세와 통일 과정이 비교적 많이 반영되었을 것이며, 또한 《三國志》의 대부분이 구어체로 표현된 역사나 전기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 당시 언어사실을 반영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1.2 연구범위

西晉시대 陳壽의 《三國志》는 《魏書》, 《蜀書》, 《吳書》의 삼서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본고에서는 그중 《魏書》에 출현하는 所字구조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魏書》가 전체 내용의 60%를 차지하며, 명사화표기 로써 출현하는 所字구조의 출현횟수 또한 866회로 그 당시 所字구조의 면모를 밝히기에 충분한 분량이 되기 때문이다.

《三國志·魏書》³⁾에 출현하는 所字는 모두 1094회며, 명사화표기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

a. 피동 표기 조사(162례)

(1) 出關, 過中牟, 爲亭長所疑, 執詣縣, 邑中或竊識之, 爲請得解。(關

3) 이하의 서술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三國志》라고만 쓰고 실제로는 《三國志·魏書》를 가리킴을 미리 밝혀둔다.

을 나와 中牟를 지나다가 亭長에 의심을 받아 잡혀서 현에 이르렀는데, 마을 사람이 몰래 알아보고는 풀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魏書
• 武帝紀》

(2) 遼西大尹田譚追擊之, 爲所殺。(遼西大尹인 田譚이 추격하였는데, 사살 당하였다.)《魏書 • 烏丸鮮卑東夷傳第三十》

b. 고정 용법 : 所謂(35례)

(3) 文帝問曰: 所謂社稷之臣也。(文帝는 듣고서 말하기를 ‘소위 社稷의 신하이다’라고 하였다.)《魏書 • 桓二陳徐衛盧傳第二十二》

c. 명사 용법 : 처소(25례)

(4) 四年, 卒於徙所。(4년에 옮겨간 곳에서 죽었다.)《魏書 • 任蘇杜鄭倉傳第十六》

d. 가설 접속사 : 만약(2례)

(5) 且邾儀父始與隱公盟, 魯人嘉之, 而不書爵, 然則王所未命, 爵尊不成, 春秋之義也。(邾儀父는 예전에 隱公과 맹약을 하였는데, 魯人이 이를 경하하고는, 그의 작위를 쓰지 않았다. 그러한 즉, 왕이 만약 임명하지 않았다면, 작위의 높음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춘추의 뜻이다.)《魏書 • 程郭董劉蔣劉傳第十四》

e. 불특정 양사 : 썸, 정도(2례)

(6) 果得一死男, 手足完具, 色黑, 長可尺所。(과연 죽은 남자아이 한명을 얻었는데, 수족이 온전하고 색이 검었으며, 키는 1척 정도 되었다.)《魏書 • 方技傳第二十九》

f. 기타 : 2례

(7) 父戒, 爲縣獄掾, 據法不聽太守欲所私殺。(아버지 戒는 현의 옥리가 되었는데, 법을 준수하여 태수가 사사로이 죽이고자 하는 자를 죽이지 않았다.)《魏書 • 二李臧文呂許典二龐閻傳第十八》

(8) 遷汝南太守, 至則尋求昔所厚己吏父, 久已死。(汝南太守로 천거하여, 도착하자마자 옛날 자기에게 후하게 대해준 그 관리의 아버지를 찾

았는데, 오래전에 이미 죽었다.)《魏書·王?丘諸葛鄧鍾傳第二十八》

위의 용례들 가운데,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所’는 비록 명사화표기에서 출발하였지만, 漢代에 이미 문법화의 과정을 거쳐 피동표기조사로 발전하였다.⁴⁾ 《三國志》에서는 ‘爲A所B’, ‘爲所B’의 두 가지 형태로 출현하고 있다. 고정 용법인 ‘所謂’ 역시, 엄격히 말하면, 동사 ‘謂’의 목적어를 지칭하는 명사화구조라 할 수 있지만, 이미 단어화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고 있어 명사화구조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기타 두 용례는 표기상의 오류로 보여 지는데, 예(7)의 ‘欲所私殺’은 所字구조의 기능과 의미를 고려할 때, ‘所欲私殺’의 어순이 되어야 할 듯하다. 예(8)의 ‘所厚己’는 ‘자기에게 후하게 대해 준 자’의 의미가 되어 지칭하는 대상이 ‘厚己’의 주체 성분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所字구조가 주체성분을 지칭할 수 없다는 통일된 기능에 위배가 된다. 이 예문은 비록 所字구조의 지칭 성분의 변화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주의가 요구되지만, 주체를 지칭하는 예는 이 문장이 유일하므로 여기서는 예외로 간주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三國志》에 출현하는 전체 所字 1094례 가운데, 비명사화구조에 해당하는 위의 6가지 용법, 228례를 제외한 866례의 명사화 구조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2. 《三國志》 所字구조의 지칭성분

所字구조의 지칭성분에 대해, 朱德熙가 문장성분으로는 목적어를, 의미격에 있어서는 목적어에 충당될 수 있는 객체, 장소, 원인, 대상 등이 있음을 주장한 뒤로,⁵⁾ 비교적 통일된 견해를 보여 왔다. 李昭東(2010)의 연구에 의하면, 동작의 주체(施事)를 제외한 모든 의미격이 所字구조의 지칭성분이 될 수 있

4) 王力, 《漢語史稿》, 중화서국, p.490, 1980/2007.

5) 朱德熙, <自指和轉指—漢語名詞化標記的、者、所、之的語法和語義功能>, 《주덕희문집》제 3권, p.22, 1999.

음)을 알 수 있다. 《三國志》의 所字구조 또한 이 규칙을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 몇몇의 용례에 있어서는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 수 없거나, 동작이나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自指’ 용례와 같은 형태가 출현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所字구조를 지칭하는 성분의 유형에 따라 3종류로 나누고 그 구체적인 지칭 성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所VP’구조

‘所VP’구조는 VP가 명사화되면서 VP내 핵심동사의 목적어 성분을 가리키는 所字구조를 말한다. 고대한어에서 목적어는 술어와의 의미관계상 동작의 객체, 장소, 목적 등의 다양한 의미성분이 출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동작의 객체 성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三國志》에 출현하는 ‘所VP’구조 역시 이러한 고대한어의 진술 형식을 반영하여 전체 ‘所VP’구조 714례 가운데 638례가 동작의 객체를 지칭하며, 장소를 지칭하는 용례도 비교적 많이 출현하고 있다.

- (9) 后曰：「昨日游宴北園，樂乎？」帝以左右泄之，所殺十餘人。(왕후가 (황제에게) ‘어제 北園에서의 주연이 즐거웠습니까?’ 라고 하자, 황제는 주위에서 (이 사실을) 발설하였다고 생각해, 죽인 자가 10여 인이나 되었다.) 《魏書·后妃傳》
- (10) 布請曰：「明公所患不過於布，今已服矣，天下不足憂。(여포가 칭하기를 ‘명공께서 걱정하는 바는 여포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미 복종하였으니, 천하에 근심거리가 없을 것입니다.’라 하였다.) 《魏書·呂布(張邈)臧洪傳》
- (11) 朕以眇身，繼承鴻業，熒熒在疚，靡所控告。(짐은 어린 나이에 대업을 이어 홀로 외로이 喪중의 비통함 심정에 처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소.) 《魏書·三少帝紀》

6) 李昭東, 《史記指稱化現象研究》, pp.47-60, 2010.

- (12) 自鄧艾、鍾會率衆伐蜀，所至輒克。(鄧艾、鍾會가 군중을 모아 촉
을 친 뒤로, 이르는 곳마다 승리를 하였다)《魏書•三少帝紀》

예 (9)의 ‘所VP’구조 ‘所殺’은 진술구 ‘殺某’에서 동사 ‘殺’의 객체인 ‘某(죽임을 당한 사람)’를 지칭하고 있다. (10)의 ‘所患’은 동사 ‘患’의 목적어인 ‘근심하는 내용’을 가리켜, 엄격히 말하자면, 심리동사나 인지동사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지각 내용이나 인지 내용(感事)이 그 지칭 성분이 되지만, 본고에서는 세분하지 않고 객체와 함께 처리하기로 한다. 예 (11), (12)의 ‘所控告’, ‘所至’는 동사 ‘控告’, ‘至’의 목적어를 지칭하고 있는데, 동사와의 의미관계상 각각 간접 대상(하소연할 대상)과 장소(이르는 곳)를 나타내고 있다. 장소를 지칭하는 ‘所VP’구조는 모두 72례로, 객체를 지칭하는 용례 다음으로 많이 출현하고 있는데, 상기한 동사 ‘至’이외에 歸, 過, 經, 在, 止, 鑿, 向, 居, 抵, 去, 歷, 駐, 都 등이 VP의 핵심동사에 충당되고 있다. ‘所VP’구조의 지칭성분 가운데, 객체와 장소 이외에 목적과 비교의 의미성분을 지칭하는 용례도 3회 나타나고 있다.

- (13) 爵隄在高唐西南，所爭地在高唐西北，相去二十餘里，可謂長歎息流涕者也。(爵隄는 高唐의 서남쪽에 있었고, 다투는 땅은 高唐의 서북쪽으로 20여리 떨어져 있으니, 정말 탄식과 눈물이 절로 날 일이라 할 수 있었다.)《魏書•韓崔高孫王傳第二十四》
- (14) 自夫人以下爵凡十二等：貴嬪、夫人，位次皇后，爵無所視。(부인이 하의 작위는 무릇 20등급이다. 귀빈, 부인은 지위가 황후 다음이고 이에 상당하는 작위는 없다.)《魏書•后妃傳》

예(13)의 ‘所爭’에서 동사 ‘爭’은 고대한어에서 ‘死’등과 함께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순수자동사로 분류되지만, 간혹 목적어가 출현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전체 의미가 ‘~를 위해서 싸우다/죽다’의 의미로 목적어나 이유를 나타내는 성분이 목적어로 출현한다. 따라서 ‘所爭’은 동사 ‘爭’의 소위 ‘爲動’목적어를 지칭하고 있다. 예(14)의 ‘所視’에서 동사 ‘視’는 여기서 ‘比(견주다)’의 의미로

그 뒤에 개사 없이 바로 비유 대상을 목적어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所視’는 동사 ‘視’의 비유대상을 목적어로 지칭하고 있다.

2.2 ‘所介VP’구조

‘所介VP’구조는 VP가 명사화되면서 VP와 상관된 개사의 목적어 성분을 가리키는 所字구조를 의미한다. 이 때 관련 의미성분을 소개하는 개사는 VP의 앞에 출현한다. 고대한어에서는 개사의 목적어에 충당되는 의미성분에 따라 다양한 개사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일인대역형의 개사, 즉 원인, 방법, 목적 등을 나타내는 개사 ‘以’와 장소, 비교, 피동 등의 의미성분을 소개하는 개사 ‘於’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三國志》에 출현하는 ‘所介VP’구조는 고대한어의 이러한 언어 사실을 반영하여 방법이나 원인을 지칭하는 ‘所以VP’의 형태가 전체 ‘所介VP’구조 131례 가운데 104례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所於(于)VP’ 용례는 한 례도 보이지 않는데, 장소를 지칭하는 所字구조는 다른 두 유형인 ‘所VP’구조와 ‘所(介)VP’구조에 분산되어 나타나고 있다.

《三國志》에 출현하는 ‘所介VP’구조는 모두 131례로, 상기한 ‘所以VP’구조 외에 ‘所由VP’, ‘所從VP’, ‘所與VP’구조가 출현하고 있다.

- (15) 荀攸曰：「此所以餌敵，如何去之！」(荀攸가 말하기를 ‘이것은 적을 유인하는 방법이니, 어찌 없애겠는가라 하였다.)
《魏書·武帝紀》
- (16) 原之所以自容於明公，公之所以待原者，以能守訓典而不易也。(原이 명공에게 받아들여지고, 공이 原을 대우하는 까닭은 능히 법도를 지켜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魏書·袁張涼國田王邴管傳》
- (17) 末俗背本，所由來久。(최악한 세상에서 근본을 거스름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魏書·辛毗楊阜高堂隆傳第二十五》
- (18) 至于高皇之父處上君，潛脩德讓，行動神明，斯乃乾坤所福饗，光靈

所從來也。(고황제의 부친인 處士君은 남몰래 검양의 미덕을 닦았으니, 이 점이 바로 하늘이 복으로써 내려준 까닭이고, 광영이 말미암아 나온 바이다.)《魏書•程郭董劉蔣劉傳第十四》

(19) 是故爲人君者, 所與游必擇正人, 所觀覽必察正象。(이 때문에 임금 된 자는 더불어 노니는 자에 있어 반드시 正人을 택해야 되며, 보는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正象을 살펴야 한다.)《魏書•三少帝紀》

예 (15)의 所字구조 ‘所以餌敵’은 ‘적을 유인하는 방법’이란 의미로, 출현하고 있는 개사 ‘以’의 목적어인 ‘방법’을 가리키며, (16)의 ‘所以自容於明公(명공에게 용납된 까닭)’, ‘所以待原(원을 대우해준 까닭)’역시 개사 ‘以’의 목적어를 지칭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방법이 아닌 원인을 나타내고 있다. 예 (17), (18)의 ‘所由來’와 ‘所從來’는 각각 개사 ‘由’와 ‘從’의 목적어 성분을 지칭하고 있는데, ‘유래한 시점 혹은 시간’ 그리고 ‘유래하게 된 행위’를 나타낸다. 예 (19)의 ‘所與游’은 ‘함께 노니는 사람’의 의미로, 개사 ‘與’의 목적어인 대상 인물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사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예 (18)에서 ‘光靈所從來’의 원래 진술 형태는 ‘光靈從此來(광영이 이로부터 나오게 되었다)’가 되는데, 여기서 개사의 목적어인 ‘此’를 지칭 대상으로 삼는 ‘光靈所從來’의 所字구조가 만들어 진 형태이다. 따라서 상기한 ‘所介VP’구조는 모두 원래의 진술 형태인 ‘개사+목적어+VP’구조에서 개사의 목적어가 ‘所’字에 의해 대체된 ‘개사+所+VP’의 형태를 거쳐, ‘所+개사+VP’의 명사화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2.3 ‘所(介)VP’구조

‘所(介)VP’구조는, ‘所介VP’구조와 마찬가지로, VP가 명사화되면서 VP와 상관된 개사의 목적어 성분을 가리키는 所字구조를 의미하지만, ‘所介VP’구조와 달리 의미 성분과 관련된 개사가 출현하지 않는다. 그리고 《三國志》의 지칭 성분에 있어 ‘所介VP’구조가 장소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을 두루 지칭할

수 있었던 반면, ‘所(介)VP’는 몇몇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용례가 장소를 지칭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된, 고대한어에 존재하는 개사구조의 전치와 후치에 따른 ‘介詞顯空’, ‘介詞削除’ 현상과 당시 개사의 보편적인 생략에 따른 所字구조에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함으로,⁷⁾ 본문에서는 부가 설명을 하지 않기로 한다.

《三國志》에 출현하는 ‘所(介)VP’구조는 모두 21례이며, 그 중 장소를 지칭하는 14례 외에 내원이나 간접대상 등의 의미성분을 지칭하고 있다.

- (20) 今境守清靜, 無所展其智能, 宜還本朝。(지금 관할지역이 평화로워, 그의 재능을 펼칠 곳이 없으니, 반드시 조정으로 들어가야 한다.)
《魏書·和常楊杜趙裴傳第二十三》
- (21) 擁徒百萬, 跨有河朔, 無所容足也。(원씨가 비록 백만의 무리가 있고, 경계를 넘어 모든 하북 땅을 차지하였지만, 발 붙힐 곳이 없다.)
《魏書·崔毛徐何邢鮑司馬傳》
- (22) 至於文昭皇后膺天靈符, 誕育明聖, 功濟生民, 德盈宇宙, 開諸後嗣, 乃道化之所興也。(文昭황후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 신명한 폐하를 낳아 길렀으며, 백성을 구제한 공로와 우주에 가득 찬 덕으로 여러 후사를 열었으니, 바로 道化가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근원입니다.)《魏書·后妃傳》
- (23) 至于高皇之父處士君, 潛脩德讓, 行動神明, 斯乃乾坤所福饗, 光靈所從來也。(고황제의 부친인 處士君은 남몰래 겸양의 미덕을 닦았으니, 이 점이 바로 하늘이 복으로써 내려준 까닭이고, 광영이 말미암아 나온 바이다.)《魏書·程郭董劉蔣劉傳第十四》
- (24) 凡陛下臨時之所行刑, 皆有罪之吏, 宜死之人也。(무릇 폐하께서 임시로 형을 내리는 사람은 모두 죄가 있는 관리로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魏書·鍾繇華歆王朗傳》

예 (20)(21)의 ‘所(介)VP’구조 ‘所展其智能’과 ‘無所用之’는 각각 ‘그 지혜와

7) 李昭東, 《史記指稱化現象研究》, pp.55-58, 2010.

능력을 펼칠 곳', '발 붙힐 곳'의 의미로, VP가 명사화되면서 모두 VP와 관련된 장소를 지칭하고 있다. '所(介)VP'는 외형상으로 볼 때, '所VP'구조와 같지만, VP에 목적어가 출현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두 구조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즉 '所VP'구조는 VP내 핵심동사의 목적어를 지칭하기 때문에 목적어가 출현할 수 없는 구조이며, '所(介)VP'구조는 VP와 상관된 개사의 목적어를 지칭하기 때문에, 동사의 목적어 출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위 두 예문의 所字구조를 보면, VP가 모두 술목구조를 띠고 있어, 그 지칭성분이 더 이상 술어의 목적어가 될 수 없고, 단지 개사의 목적어를 지칭할 수 밖에 없어, 유형상 '所VP'구조가 아닌 '所(介)VP'구조임을 알 수 있다. 예(22)의 '所興'은 '(道化가 말미암아) 흥기하게 된 근원'이라는 의미로, 원래의 완전한 진술형태인 '由此興(혹은 興由此)'이나 '自此興(혹은 興自此)'에서 개사 '由' 혹은 '自'의 목적어를 지칭하여 전환된 구조이다. 예(23)의 '乾坤所福饗'은 '건곤(하늘)이 복으로써 누리게 해주는 까닭'이라는 의미로 생략된 개사 '以'의 목적어를 가리키고 있으며, 예(24)의 '所行刑'은 '형을 집행하는 자'의 의미로 역시 개사 '與'의 생략과 그 목적어를 지칭하여 전환된 구조이다.

위에서 3종 所字구조의 지칭성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유형별 지칭성분에 대한 출현빈도의 차이는 바로 3종 유형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는 3종 유형별 지칭성분의 출현빈도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1. 3종 所字구조의 지칭성분별 출현빈도

	객체	장소	방법	원인	내원	간접대상	기타 ⁸⁾	합
所VP	638	73	0	0	0	0	3	714
所介VP	0	0	68	48	9	6	0	131
所(介) VP	0	14	0	3	3	1	0	21
합	638	87	68	51	12	7	3	866

3. 《三國志》 所字구조의 통사위치

所字구조는 관형어와 중심어로 구성된 명사성성분으로, 명사성성분이 일반적으로 출현할 수 있는 주어, 목적어, 관형어, 서술어(판단문) 등의 위치에 출현하고 있다. 하지만, 所字구조의 3가지 유형에 따라 통사위치별 출현빈도에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아래에서는 所字구조의 3종 유형이 각각의 통사위치에 출현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예시를 통해 살펴보고 그 출현빈도에 대해 논하도록 한다.

《三國志》의 ‘所VP’구조는 주어, 목적어, 관형어, 판단문의 서술어 위치뿐 아니라 겹어와 부사어의 위치에도 출현하고 있다.

- (25) 楊遂以所將攻上黨太守于壺關，不下，略諸縣，衆至數千人。(楊遂는 거느린 병사로써 上黨태수를 壺關에서 공격하여 함락시키지 못하자, 여러 현을 침략하였는데, 병사가 수천에 달했다.)《魏書·二公孫陶四張傳》
- (26) 矯太后遺詔，使會起兵廢文王，皆班示坐上人，使下議訖，書版署置，更使所親信代領諸軍。(태후의 유서를 사칭하여 鍾會가 병사를 일으켜 문왕을 폐하려 한다고 전하고, 앉아 있는 자들에게 돌려 보

8) ‘所VP’구조 가운데 목적어 비유의 의미성분을 지칭하는 용례는 모두 3례인데, 여기서는 분리하지 않고 기타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함.

이며, 그들로 하여금 의견에 동의케 하였다. 아울러 임명장을 나무판에다 새겨, 친히 신입하는 자들에게 모든 군대를 대신 거느리도록 하였다.《魏書·王?丘諸葛鄧鍾傳第二十八》

(27) 不如率衆而西, 所在收兵, 以攻長安, 爲董公報仇. (병사들을 거느리고 서쪽으로 가서 곳곳에서 병사를 모아 장안을 공격하여 董公의 복수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魏書·荀彧荀攸賈詡傳》

주어, 목적어, 관형어, 판단문의 서술어 위치에 출현하는 ‘所VP’구조는 이미 지칭성분의 예를 통해서 살펴본 바, 중복 예시를 피하기로 하며, 위의 3례는 각각 개사의 목적어, 겹어, 부사어의 위치에 출현하고 있는 ‘所VP’구조이다. 겹어 위치에 출현하는 ‘所VP’구조는 위의 예가 유일하며,⁹⁾ 부사어에 해당하는 ‘所VP’구조는 모두 장소를 지칭하는 형태로, 전체 문장에서 공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명사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所VP’구조의 통사위치별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목적어 위치에 출현하는 빈도가 260례로 가장 많은데, 전체 ‘所VP’구조 714례 가운데 36%를 차지한다. ‘所VP’가 목적어 위치에 출현할 때, 그 앞의 동사는 ‘有’, ‘無’, ‘多’, ‘如’ 등의 관계동사와 ‘愼’, ‘知’, ‘言’, ‘度’, ‘求’, ‘思’, ‘問’, ‘見’ 등의 심리동사나 인지동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도 동사 ‘有’와 ‘無’에 집중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판단문의 서술어 위치와 주어자리에 각각 159례와 158례가 출현하고 있는데, ‘所VP’구조가 주어 위치에 출현할 때, 주어의 유형은 거의 대부분이 진술의 대상(當事)이거나 판단문의 주어에 해당이 된다. 다음으로 관형어 위치에 118례가 출현하고 있는데, 절대다수가 동일성 관형어에 속하며, 끝으로 위에서 언급했던 명사부사어 위치에 19례가 출현하고 있다.

‘所VP’구조가 출현하는 통사위치와 그 출현빈도로 볼 때, 기타 명사성성분이 출현할 수 있는 통사위치에 모두 나타나고 있지만, 각각의 통사위치로 볼 때, ‘所VP’구조는 여러 가지 주어, 목적어, 관형어의 세부 유형가운데, 한두

9) 所字구조가 출현하는 통사위치별 출현빈도의 통계수치에서는 목적어에 편입시켜 산출하기로 함.

가지 유형에 집중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所VP’구조가 판단문의 서술어 위치에 두 번째로 높은 출현빈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所VP’구조의 특징과 명사성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즉 ‘所VP’구조는 동사의 목적어 성분을 지칭하는 만큼 구체적인 지칭 대상이 사물이나 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미적 특징을 지니며, 명사성의 정도에 있어, 비록 기타 所字구조의 유형에 비해서는 높지만, 전체 所字구조가 지니는 동사성성분의 수식성분과 중심어로 구성된 의미구조와 특정하고 구체적이 아닌 ‘泛指’의 광범위한 사물이나 행위를 가리키는 지칭구조상, 일반명사나 대명사에 비해 그 명사성의 정도가 비교적 낮음을 알 수 있다.

《三國志》에 출현하는 ‘所介VP’구조 역시 부사어 위치를 제외한 주어, 목적어, 관형어, 판단문의 서술어 위치에 출현하고 있다.

- (28) 公明哲超世，古之所以得其民者，公既勤之矣，今之所以失其民者，公既戒之矣。(공의 명철함은 시대를 뛰어 넘습니다. 옛날에 백성을 얻은 방법에 대해 공께서는 이미 노력하셨고, 지금 백성을 잃게 된 원인에 대해 공께서는 이미 경계하셨습니다.)《魏書·袁張涼國田王邴管傳》
- (29) 夫顯爵所以褒元功，重賞所以寵烈士。(무릇 작위를 높임은 큰 공을 포상하기 위함이고, 상을 높임은 열사를 총애하는 방법입니다.)《魏書·三少帝紀》
- (30) 陛下何不遵周公之所以用? (폐하께서는 어찌 주공이 등용된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까?)《魏書·任蘇杜鄭倉傳第十六》
- (31) 初朗所與俱徙趙咨，官至太常，爲世好士。(처음에 군께서 함께 옮겨왔던 趙咨는 태상의 관직에 이르렀고, 대대로 훌륭한 선비가 되었습니다.)《魏書·劉司馬梁張溫賈傳第十五》

위의 예는 순서대로 각각 주어와 판단문의 서술어, 목적어와 관형어 위치에 출현하고 있는 ‘所介VP’구조이다. 통사위치별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판단문의 서술어 위치에 출현하는 용례가 85례로 가장 높은데, 전체 ‘所介VP’구조 131례 가운데 65%에 달한다. 다음으로는 주어, 목적어, 관형어 순인데, 각각

27례, 15례, 4례의 출현빈도를 보인다. ‘所介VP’구조가 주어 위치에 놓일 때, 절대다수가 판단문의 주어 유형에 속하는데, 이렇게 볼 때, ‘所介VP’구조는 거의 대부분이 판단문의 주어, 서술어 위치에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所介VP’구조의 지칭성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所介VP’구조가 가리키는 ‘VP하는 방법’, ‘VP하는 원인’, ‘VP하는 내원’ 등의 지칭성분은 목적어나 관형어 등의 위치에 출현하기 힘든 의미구조로, 일반적으로 판단문의 주어 위치에서 진술의 대상이나 원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거나, 판단문의 서술어 위치에서 대상에 대한 진술이나 원인 등을 나타내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三國志》에 출현하는 ‘所(介)VP’구조는 모두 21례로 전체 출현빈도가 현저히 낮지만 역시 주어, 목적어, 관형어, 판단문의 서술어 위치에 고르게 출현하고 있다.

- (32) 清掃所災之處，不敢於此有所立作，蕙莆、嘉禾必生此地，以報陛下
 恭之德。(만약 재앙이 있었던 곳을 깨끗이 하고 여기에 세워지는 건물
 이 없게 하면, 蕙莆와 嘉禾가 만드시 여기서 자라나, 폐하의 근면한 덕
 에 보답할 것입니다.)《魏書·辛毗楊阜高堂隆傳第二十五》
- (33) 獄吏者，百姓之所懸命。(옥리라는 직분은 백성들의 목숨이 달린 곳입
 니다.)《魏書·王衛二劉傳第二十一》

위의 두 예는 ‘所(介)VP’구조가 각각 관형어와 판단문의 서술어 위치에 출현하는 경우이다. 예(32)의 ‘所災’는 장소를 지칭하는 ‘所(介)VP’구조로 개사 ‘於(于)’가 생략이 되어있으며, 뒤에 출현하는 중심어 ‘處’와 동일성을 가지는 동일성 관형어이다. 통사위치별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위의 ‘所VP’구조와 마찬가지로, 목적어에 충당되는 용례가 9례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판단문의 서술어 7례, 주어 3례, 관형어 2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으로, 《三國志》 所字구조가 출현하는 통사위치와 그 출현빈도를 所

字구조의 3종 유형에 따라 살펴보았다. 전체 所字구조의 통사위치별 출현빈도를 보면, 목적어의 위치에 가장 많이 출현하며, 부사어를 제외한 관형어의 위치에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기타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2. 3종 所字구조의 통사위치별 출현빈도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판단문 서술어	합
所VP	158	260	118	19	159	714
所介VP	27	15	4	0	85	131
所(介) VP	3	9	2	0	7	21
합	188	284	124	19	251	866

4. 《三國志》 所字구조의 VP유형

所字구조의 지칭성분은 VP내 핵심동사 혹은 상관된 개사의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동사의 목적어를 지칭하는 ‘所VP’구조에서는 목적어를 포함하는 술목구조가 출현할 수 없으며, 개사의 목적어를 지칭하는 ‘所介VP’나 ‘所(介)VP’구조에서는 개사의 목적어를 포함하는 개목구조가 출현할 수 없다. 따라서 所字구조의 3종 유형에 따라 VP유형의 출현빈도수가 다르게 나타남을 예상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 그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핵심동사의 목적어를 지칭하는 ‘所VP’구조는 5종류의 VP유형을 띠고 있는데, 동사 단독으로 출현하는 경우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수식구조, 연합구조, 술목구조, 연동구조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34) 德美過於伊、周，此至德之所極也。(미덕은 이윤과 주공을 능가하니, 이것은 지덕의 극치입니다.)《魏書•程郭董劉蔣劉傳第十四》
- (35) 夫顯賢表德，聖王所重；舉善而教，仲尼所美。(어진 이를 드러내고 유덕자를 표창하는 것은 성왕이 중시하는 바였고, 선한 이를 들어 가르치게 하는 것은 仲尼도 아름답게 여긴 일이다.)《魏書•徐胡二王傳第二十七》
- (36) 而校計甲兵，唯此爲先，斯豈鄙州士女所望於明公哉！(오히려 병사와 무기의 수를 헤아리는 것만 우선시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우리 마을의 남녀가 명공에게 바라는 바이겠는가?)《魏書•崔毛徐何邢鮑司馬傳》
- (37) 帝問曰；「卿所聞見天下風教何如？」(황제가 묻기를 ‘경이 듣고 본 바 천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인가라 하였다.)《魏書•程郭董劉蔣劉傳第十四》

위의 예문은 앞의 예시에서 출현하지 않았던 VP 유형을 소개한 것인데, 각각 명사, 형용사, 술보구조, 연합구조로 이루어진 ‘所VP’구조들이다. 所字구조는 명사화구조로 반드시 동사성성분이 출현해야 한다. 특히 동사의 목적어가 지칭성분이 되는 ‘所VP’구조에서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타동사가 충당되어야 한다. 예(34)(35)의 ‘所極’, ‘所美’는 각각 명사와 형용사로 충당되어 이와 같은 사실에 위배가 되는데, 사실상 여기서의 명사‘極’과 형용사‘美’는 이미 타동사화 되어 ‘極(최상)으로 삼다’, ‘아름답다고 여기다’와 같은 일종의 인지동사로 먼저 전환이 된 상태에서 명사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三國志》의 ‘所VP’구조에서 VP에 충당되고 있는 명사로는 이 외에 ‘宗’이 있고, 형용사로는 ‘難’, ‘近’, ‘貴’, ‘親’, ‘急’, ‘私’, ‘樂’, ‘長’, ‘利’, ‘易’등이 있으며, 각각 3례와 29례가 존재한다. 예(36)(37)의 所字구조는 술보구조와 연합구조로 이루어진 ‘所VP’구조이다. VP유형이 연합구조가 되는 ‘所VP’구조는 모두 ‘聞見’과 같은 2개의 동사가 나란히 출현하고 있는데, 이 외에 ‘殘戮’, ‘斬獲’, ‘憂苦’, ‘聞知’, ‘資遺’, ‘收送’, ‘褒貶’, ‘誅納’등의 동사 병렬 연합구조가 출현하고 있다. 개사의 목적어를 지칭하는 ‘所介VP’구조의 VP유형은 예외 없이 부사어와

중심어로 구성된 동사성수식구조로 되어있다. 본고에서 所字구조를 3종으로 나누는 까닭은 분석의 편의를 위한 것인데, 우리가 흔히 所字구조에서 VP유형을 고찰한다고 할 때, 그 범위는 ‘所’字와 결합하는 나머지 성분을 두고 말한 것으로, ‘所介VP’구조에서는 개사까지 포함한 성분이 된다. 따라서 ‘所介VP’구조에서 실제 VP 유형은 부사어가 되는 개사구조와 중심어가 되는 동사부분으로 구성이 되는 수식구조이다. ‘所介VP’구조에서 개사를 제외한 VP만을 두고 보면, 술목구조가 49회로 가장 많이 출현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연합구조, 수식구조, 동사 등의 순으로 출현하고 있다.

- (38) 古者諸侯朝聘, 所以敦睦親親協和萬國也。(옛날 제후가 정기적으로 조정을 방문하는 것은 친척과의 화목을 도모하고 만국을 화합시키기 위함이었다.)《魏書·明帝紀》
- (39) 寢廟特祀, 亦姜嫄之闕宮也, 而未著不毀之制, 懼論功報德之義, 萬世或闕焉, 非所以昭孝示後世也。(폐하께서 어머니를 위해 만든) 사당은 姜嫄의 비궁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훼손하지 말 것을 법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후에 공의 덕을 논의할 때 혹 부족하게 여길까 두렵습니다. (이는) 효를 밝혀 후세에 보이는 방법이 아닙니다.)《魏書·后妃傳》

위의 예문은 VP유형이 연합구조와 연동구조로 이루어진 ‘所介VP’구조이다. 연합구조는 전체 ‘所介VP’구조 131례 가운데 31례로 술목구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출현하고 있는데, 이는 ‘所介VP’구조가 출현하는 통사위치의 절대 다수가 판단문의 서술어인 점과 관계가 있다. 판단문의 서술어에서 ‘所介VP’구조가 수행하는 의미적 역할은 결과에 대한 원인과 방법 등의 설명이며, 연합구조는 이러한 설명의 방식에 비교적 적합한 형식적 유형이기 때문에 판단이 된다.

생략된 개사의 목적어를 지칭하는 ‘所(介)VP’구조에서 VP유형은 ‘所VP’구조와 마찬가지로 동사 단독일 경우가 가장 많다. 하지만, 술목구조 역시 동사

못지않게 많이 출현하고 있는데, 이점은 술목구조가 출현할 수 없는 ‘所VP’구조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 (40) 又足下昔日爲曹公所禮辟，夫戚族人而疏所生。(또한 족하게서는 옛날 조공에게 예로써 부름을 받아 죽인들을 친히 대하고 낳아준 이(친부모)를 멀리하셨습니다.)《魏書•程郭董劉蔣劉傳第十四》
- (41) 至于高皇之父處士君，潛脩德讓，行動神明，斯乃乾坤所福饗，光靈所從來也。(고황제의 부친인 處士君은 남몰래 겸양의 미덕을 닦았으니, 이 점이 바로 하늘이 복으로써 내려준 까닭이고, 광영이 말미암아 나온 바이다.)《魏書•程郭董劉蔣劉傳第十四》
- (42) 漢已久亡，魏已得之，何所追興徵祥乎!(漢은 이미 망했고, 魏는 이미 나라를 이루었으니,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을 좇아 상서로움을 이르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魏書•袁張涼國田王邴管傳》

예(40)(41)의 ‘所(介)VP’구조에서 VP유형은 각각 동사와 수식구조가 되며, 예(42)의 ‘所(介)VP’구조에서 VP에 해당하는 ‘追興徵祥’은 두 개의 술목구조로 이루어진 연동구조에 해당한다. ‘所(介)VP’구조에서 VP유형별 출현 빈도는 동사가 10례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술목구조가 9례이며, 수식구조와 연동구조가 각각 1례씩 존재한다.

아래의 표는 《三國志》에 출현하는 所字구조 3가지 유형의 VP유형별 출현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3. 3종 所字구조의 VP유형별 출현빈도

	동사 ¹⁰⁾	수식구조	술목구조	술보구조	연합구조	연동구조	합
所 VP	611	84	0	2	16	1	714
所介 VP	0	131	0	0	0	0	131
所(介) VP	10	1	9	0	0	1	21
합	621	216	9	2	16	2	866

5. 所字구조의 발전방향 고찰

앞의 절들에서는 《三國志》에 출현하는 所字구조에 대해 몇 가지 방면에서 살펴보았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근대 한어의 명사화표기 ‘底’가 탄생하기까지, 분산되어 있던 고대한어 명사화표기의 발전과 통일에 대한 기초 연구이다. 이 절에서는 위에서 분석되었던 《三國志》의 所字구조 정보를 토대로 3세기말 西晉시대 所字구조의 발전추세를 살펴 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연구 성과인 《史記》내 所字구조와의 비교를 통해 진행될 것인데, 《史記》는 비록 漢代의 사마천이 완성한 역사서지만, 先秦시대의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그 당시의 언어 그대로 기록 되어있어 西漢과 先秦시대의 언어 현상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三國志》와 《史記》내 所字구조의 비교는 所字구조의 탄생부터 西晉시대까지의 所字구조에 대한 발전 과정을 고찰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먼저, 명사화표기로 쓰인 所字의 출현빈도를 살펴보면, 《三國志》에서 명사화표기로 쓰인 所字는 《三國志·魏書》의 전체자수 250326자 가운데 866

10)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所字구조의 VP유형으로 이 외에 명사와 형용사가 있지만, 이들은 먼저 동사화된 뒤에 소자구조의 명사화에 참여하므로 여기서는 동사에 편입시키기로 한다.

례로 약 3.4%정도가 되며, 《史記》에서는 전체자수 572864자 가운데 1755례로 약 3.0%에 해당이 된다.¹¹⁾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명사화표기로 쓰인 所字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전혀 축소 사용이 되지 않고 오히려 조금 증가했으며, 기타 피동 표기 및 명사, 고정용법으로 쓰인 용례를 고려한다면 서진시대 所字는 여전히 비교적 사용빈도가 높은 단어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史記》와 《三國志》 내 所字구조의 3종 유형별 출현 빈도를 살펴보자. 두 문헌에서 所字구조의 출현빈도는 모두 ‘所VP’, ‘所介VP’, ‘所(介)VP’구조의 순서대로 출현하고 있지만, 각각의 문헌에서 차지하는 3종 유형의 출현 비율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

표4.《史記》와 《三國志》 所字구조의 유형별 출현빈도

	所VP	所介VP	所(介)VP	합
《史記》	1189(68%)	447(25%)	119(7%)	1755
《三國志》	714(83%)	131(15%)	21(2%)	866

표4에서 알 수 있듯이, 所字구조의 3종 유형별 출현빈도수에 있어, 《史記》와 《三國志》 모두 동사의 목적어를 지칭하는 ‘所VP’구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전체 용례에서 3종 유형이 출현하는 비율을 비교해볼 때, 《三國志》에서 ‘所VP’구조가 출현하는 비율은 전체의 83%로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압도적일 뿐 아니라, 《史記》 내 동일유형인 ‘所VP’구조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所字구조에 대한 지칭성분의 통일성이라는 각도에서 그 발전추세를 고찰해 볼 수 있는데, 즉 지칭성분에 따라 분류된 所字구조의 3종 유형이 西晉시대로 접어들면서 동사의 목적어를 지칭하는 한 가지 유형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두 문헌의 지칭성분별 출현빈도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아래의 표를 보

11) 이 통계수치는 李波의 《史記字類研究》와 이소동의 《史記指稱化現象研究》에서 밝혀 놓은 것이며, 본문의 표4,5,6,7에 《史記》 관련된 통계수치는 모두 여기에 근거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자.

표5.《史記》와 《三國志》 所字구조의 지칭성분별 출현빈도

	객체	장소	방법	원인	내원	간접대상	기타	합
《史記》	1170 (67%)	106 (6%)	202 (11%)	230 (13%)	27 (2%)	15 (1%)	5 (0%)	1755
《三國志》	638 (74%)	87 (10%)	68 (8%)	51 (6%)	12 (1.2%)	7 (0.7%)	3 (0.1%)	866

《史記》와 비교하여, 《三國志》 所字구조의 지칭성분에서 비교적 두드러지는 점은 객체성분과 장소의 높은 지칭비율인데, 두 성분을 합하면 84%에 달한다. 이와 상대적으로, 방법이나 원인 등 개사의 목적어가 되는 의미성분의 지칭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동사의 직접 목적어가 되는 의미 성분인 객체와 장소를 지칭하는 ‘所VP’구조의 출현 비율이 높고, 그 외 개사의 목적어를 지칭하는 ‘所介VP’, ‘所(介)VP’의 출현 비율이 낮은 것과 맞물려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두 문헌 내 所字구조의 통사위치별 출현빈도를 살펴보자.

표6.《史記》와 《三國志》 所字구조의 통사위치별 출현빈도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판단문서술어	합
《史記》	503 (29%)	57 2(33%)	296 (17%)	4 (0%)	380 (21%)	1755
《三國志》	188 (21%)	284 (33%)	124 (14%)	19 (2%)	251 (30%)	866

두 문헌 내 所字구조의 통사위치별 출현빈도에서 높고 낮음의 순서에 변동이 있는 부분은 판단문 서술어와 주어 부분인데, 《史記》에서 출현빈도의 고저에 따른 순서가 목적어, 주어, 판단문 서술어이던 것이 《三國志》에서는 판단문 서술어에 출현하는 所字구조가 주어 위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三國志》의 所字구조가 목적어와 판단문의

서술어 위치에 출현하는 비율은 전체의 60%가 넘는다. 목적어와 판단문의 서술어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통사위치이지만, 《三國志》에서 所字구조가 목적어 위치에 출현할 때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 두 위치의 성격적 차이가 크지 않고, 또한 이 점은 《史記》에 출현하는 所字구조와 차별성을 갖는 또 하나의 발전 추세를 유추해 낼 수 있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三國志》에서 所字구조가 목적어 위치에 출현하는 횟수는 모두 284회이며, 所字구조 앞에 놓이는 서술어 동사의 유형은, 《史記》와 비교해 볼 때, 몇몇 동사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점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된 바 있지만, 목적어 위치에 출현하는 所字구조의 절반 이상인 158례가 ‘有’, ‘無’, ‘多’, ‘少’, ‘在’와 같은 존재 동사와 ‘女’, ‘若’과 같은 비유동사의 뒤에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거의 절대다수가 동사 ‘有’, ‘無’의 뒤에 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고대한어에서 판단문의 서술어는, 엄격히 말하자면, 생략 혹은 隱藏된 판단동사 ‘是’의 목적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존재동사, 비유동사, 판단동사 등은 기타 동사들에 비해 실제의 단어의미(詞彙意義)보다 통사적 관계에서 부여되는 어법의의미(語法意義)가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상위 분류에 있어 ‘관계동사’ 혹은 ‘분류동사’로 함께 분류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고대한어에서 관계동사의 목적어와 판단문의 서술어는 그 성격상 큰 차이가 없으며, 《三國志》의 所字구조는 이 두 위치에 적어도 50%가 넘는 출현 빈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물론 《史記》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西晉시대에 들어와 所字구조의 출현 위치가 더욱더 고정화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끝으로, 《史記》와 《三國志》내 所字구조의 VP유형별 출현빈도를 비교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7. 《史記》와 《三國志》 所字구조의 VP유형별 출현빈도

	동사	수식구조	술목구조	술보구조	연합구조	연동구조	합
《史記》	1021 (58%)	608 (34%)	49 (4%)	18 (1%)	40 (2%)	19 (1%)	1755
《三國志》	621 (72%)	216 (25%)	9 (1%)	2 (0.2%)	16 (1.6%)	2 (0.2%)	866

위의 표에서 所字구조의 VP유형별 출현빈도를 보면, 그 비율이 비교적 낮은 구조를 제외하면, 두 문헌이 동일한 순서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史記》에 비해, 《三國志》 所字구조의 VP유형별 출현빈도에 있어 비교적 두드러진 특징은 VP유형 가운데 동사의 충당 비율이 다른 구조에 비해 월등히 높고, 또한 《史記》 所字구조의 동사 충당 비율에 비해서도 크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점으로 미루어 볼 때, 西晉시대에 所字구조는 VP유형에 있어 동사 단독으로 단순화 되어 가는 발전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所字구조 VP유형이 연합구조가 될 때 내부의 구성 성분에서도 검증이 되는데,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三國志》 所字구조의 VP유형이 연합구조가 될 때, 모든 예들이 동사의 병렬로 구성되어 있던 현상은 바로 이점과 상응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몇 가지 방면에서 《史記》와의 비교를 통해 《三國志》 所字구조의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所字구조는 이 시기에 비록 출현빈도가 감소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 명사화구조의 세부 기능에 있어 비교적 통일된 면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所字구조의 지칭성분에 있어서는 동사의 목적어인 객체를 주로 가리키며, 출현하는 동사위치에 있어서는 관계동사의 목적어 위치에, 그리고 所字구조에 충당되는 VP유형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동사 단독으로 나타나고 있어, 의미구조가 단일화, 출현위지의 고정화, 그리고 형식의 간단화 방면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결론

본 연구는 고대한어에서 분산되었던 명사화 표기와 기능들이 근대한어에서 통일된 명사화구조인 ‘底字’구조로 어떻게 변화 발전하였는가를 큰 주제의 출발로써, 西晉 시대의 저작인 《三國志》의 所字구조를 분석하고, 나아가 《史記》와의 비교를 통하여 先秦에서 漢代를 거쳐 西晉까지에 걸친 所字구조의 변화 발전되어가는 방향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먼저 《三國志》의 所字구조는 3종 유형별 출현빈도에 있어 대부분이 동사의 목적어를 지칭하는 ‘所VP’유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와 상응하여 지칭 성분 또한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객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 장소, 목적, 비유 등의 의미성분이 출현하고 있다. 所字구조가 출현하는 통사위치는 3종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는데, ‘所VP’와 ‘所(介)VP’는 목적어 위치에, ‘所介VP’는 판단문의 서술어 위치에 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所字구조에 충당되는 VP 유형에 있어서는 70%이상이 동사 단독으로 출현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수식구조, 연합구조, 술목구조, 연동구조, 술보구조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三國志》 所字구조의 이와 같은 특징은 西晉시대 所字구조의 발전방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所字구조는 서진시대에 지칭성분의 단일화, 출현위치의 고정화, VP유형의 간단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所字구조는 근대의 통일된 명사화 구조인 ‘底字구조’가 출현하면서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 이러한 발전방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參考文獻》

- 杜道流,〈指稱、陳述理論及其對商賈語法研究的意義〉,《安徽大學學報》第一期,安徽大學出版社,2004.
- 方有國,〈上古漢語‘所’字與所字結構再研究〉,《上古漢語語法研究》,巴蜀書社,2002.
- 郭銳,〈現代漢語和古代漢語中的介詞懸空和介詞刪除〉,《中國語言學》第二輯,山東教育出版社,2009.
- 何樂士,《史記語法特點研究》,商務印書館,2005.
- 李昭東,〈所字의 제취성분에 대한 고찰〉,《中國語文論叢》第33輯,중국어문학회,2007.
- 李昭東,《史記指稱化現象研究》,북경대학박사학위논문,2010.
- 李波,《史記字頻研究》,상무인서관,2006.
- 芮月英,〈《史記》‘所’字考察〉,《淮陽師範大學學報》第二十一卷第六期,淮陽師範大學出版社,1999.
- 宋紹年,〈試談《史記》的幾種句法結構〉,《語言學論叢》第十輯,商務印書館,1983.
- 王力,《漢語史稿》,중화서국,1980/2007.
- 汪大明,《上古漢語謂詞轉指用法探析》,西南師範大學碩士論文,2003.
- 姚振武,〈關於自指和轉指〉,《古漢語研究》第三期,商務印書館,1994.
- 張赫,《漢語介詞詞組次序的歷史演變》,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2002.
- 朱德熙,〈語法講義〉,《朱德熙文集》第一卷,商務印書館,1982/1999.
- 朱德熙,〈自指和轉指—漢語名詞化標記的、者、所、之的語法和語義功能〉,《朱德熙文集》第三卷,商務印書館,1983/1999.

《中文提要》

本文主要探討西晉《三國志》所字結構的功能，並通過與《史記》所字結構的比較考察了從先秦到西晉時期所字結構的發展趨勢。《三國志》所字結構有以下幾個方面的特點：首先，所字結構在提取成分上主要提取受事，也可以提取處所，目的，原因等方面，與此相應，《三國志》所字結構中出現頻率最高的類型就是提取動詞賓語的‘所VP’結構，占83%。所字結構出現的句法位置方面，出現頻率最高的是賓語位置，其次為判斷句謂語，主語，定語。在充當所字結構的VP類型上，大部分是由單個動詞充當的，全所字結構中占72%。這樣的事實可以說是反映西晉時期所字結構的發展方向。通過與《史記》所字結構的比較，我們可以發現所字結構的幾個發展趨勢：指稱成分上的單純化，出現句法位置上的固定化，VP類型上的簡單化。

關鍵詞：三國志, 所字結構, 史記, 西晉, 所VP, 所介VP, 所(介)VP

이 논문은 2011년 5월 20일에 접수되어 2011년 6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1년 6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